

앗! 국가가 위험하다



지금 당신감에도
문인시대에도 간첩은 숨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문화주간 베이러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 및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문화주간
“아주 타당한 자유를 위하여”
2004. 10. 15~23

내 양심에 불간섭
현호 orolli@empal.com
김영우 ywoos98@hanmail.net
최원석 skuld16@hanmail.net
최영화 scobel2000@hanmail.net
조림식 www.jungleboogie.pe.kr
최민정 sia0122@empal.com

기획 내양심에불간섭
제작 임탈기획
발행처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http://freedom.jinbo.net>

당신에게 걸린 감시?
당신에게 걸린 감시?

장길산 작가 황석영씨 구속 수감되다.

사건 개요 방북 중 남한에 1천여개의 핵무기가 배치돼 있다는 내용을 누설한 죄로 국가보안법 국가기밀 조항 위반으로 1993년 구속수감.

항소심 판결 '남한에는 1천여개의 핵이 배치되어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 '황씨의 말은 외신과 국내언론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밝힌 것이고 정보의 내용도 핵문제 전문가가 아닌 황씨 개인의 주관적인 것이어서 국가 기밀로서의 사실적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일부 무죄 선고

대법원 판결 1심 2심 일부 무죄 판결 반복 '신문기사나 책자 등 국내 간행물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항이라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유리한 것이면 국가기밀에 속한다'

유죄 판결

여러분이 대법원장이라면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법집행을 자의적 판단에 근거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의적 판단에 근거하여 법을 집행한 저의가 궁금하네요.
이렇듯 국가보안법은 여러 해석을 가능케 하는 이 시대의 혼물스런 고찰명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걸 떠나서 레드 콤플렉스 마법에 걸린 당신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수감되었던 황석영씨 작품인 장길산을 오늘도 시청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100만 청원운동



서명하면, 바뀝니다!

안된다고 생각하세요?
국가보안법을 없애자는 시민들의 꾸준한 여론이 있었기에 지금껏 국가보안법은 개정에 개정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대의 요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100만 청원운동〉은 국민여론을 정치권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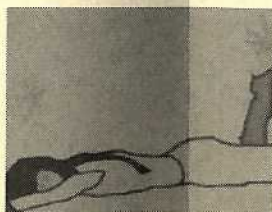


서명 홈페이지
<http://freedom.jinbo.net/>



“아주 타당한 자유를 위하여”

국가보안의 ‘진짜’ 주인을 찾습니다



이부록 incubator@hanmail.net

2004년 10월 15일(금)~23일(토)
전시/영상 - 민주화운동기념회관시내 곳곳

주 최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주 관 :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사)한국독립영화협회

기자회견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 문화예술인 선언”

일 시 | 9월 22일

장 소 | 느티나무

주 관 | 문화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민주노동당

전시

시국선언展

일 시 | 2004년 10월 15일(금) ~ 23일(토)

장 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갤러리

주 관 | 문화연대

참여작가 | 최진욱, 김기수, 옥정호, 이재, 김태현, 노순택, 조습,
최경태, 김학량, 김형석, 김대중, 학교사수단

집회

“아주 타당한 자유를 위한 예술퍼포먼스 시위”

일 시 | 2004년 10월 20일(수) 오전 11시 ~ 오후 4시

장 소 | 국회 앞

영상제

“절망의 끝에서 부르는 희망의 노래”

일 시 | 2004년 10월 15일(금) ~ 17일(일)

장 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강당

주 최 | 국가보안법철폐국민연대

주 관 | (사)한국독립영화협회

옴니버스 영화 제작 참여작가 | 김태일, 김경만, 최진성, 윤성호,
김진열(푸른영상), 이훈규(스튜디오 아이 스크림(Studio i Scream)),
미디어참세상 영상팀

*상영작 | <22일간의 고백>, <안덕영씨의 빼앗긴 삶>, <4월 9일>,
<어머니의 보랏빛 수건>, <보이지 않는 창살>, <경계도시>,
<레드헌트>, <독립영화인 국가보안법 철폐 프로젝트>

콘서트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문화제
- 어기영차, 민주·인권 통일의 바다로

일 시 | 2004년 10월 23일(토) 오후 5시

장 소 | 시청 앞 광장

주 관 | 10·23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문화제 추진위원회

우리는 조선일보를 지지한다

조선일보, 사설통해 국가보안법 제정 반대해

대다수 언론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우려의 입장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조선일보가 국가보안법 제정 당시인 1948년 11월 14일자 신문에서 국가보안법 제정을 반대했던 사실이 밝혀져 화제다.

조선일보는 '국가보안법을 배격함'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방금 국회에 상정된 국가보안법은 광범하게 정치범 내지 사상범을 만들어 낼 성질의 법안인 점에서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명시적으로 국가보안법 제정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국가보안법 제정 반대의 이유로 △형법과의 중복 △일제하 치안유지법처럼 다수의 사상범을 만들어 낼 우려 △자의적 해석에 의한 오·남용의 가능성 등을 들면서 "군이 일제하 치안유지법과 같은 성격의 법을 제정한다면 다수의 정치사상범을 만들어 내게 될 것이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우 기자



오 타 황 당 사건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 워낙 외계어 등이 판치다 보니 맞춤법 틀리고 착오로 글자 첨가된 것들은 한 두번 실수로 너그럽이 넘어가 주는 시대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건이 아주 예전에 있었다.

1955년 3월 15일자 동아일보 1면 기사 가운데 한미 석유협정 관계 다른 기사제목에 정판공의 실수로 괴뢰라는 2글자가 잘못 첨가되었다. 결국 '괴뢰 고위층 재가 대기중'이란 요상한 제목이 났다. 동아일보는 이 실수를 발견한 즉시로 연판 수정하여 재인쇄하고 잘못 인쇄된 신문을 폐기처분하고, 가판에 나간 신문을 회수하였다. 그리고 수정 인쇄된 신문에서 독자에게 공식 사과하였다.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친아당적인 논조로 글을 쓰는 동아일보를 미워하던 정부, 패자를 부르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발행인, 편집인을 불구속 입건하고 3월 17일 공보실에서 무기정간 처분을 단행하였다.

믿거나 말거나에 나오는 얘기 아니냐구요? 아닙니다. 실화입니다. 우리나라 메이저 신문 중의 하나인 동아일보에도 이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이랬던 동아일보... 지금은 국가보안법을 옹호하고, 수구보수세력을 지지합니다. 알아서 가는 것이지, 아니면 과거를 잊어버린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글자 틀린 것도 문제삼는 국가보안법. 정말 옹호할 가치가 있는 법일까요?

참고
정판공: 조판의 잘못된 부분이나 오자(誤字) 등을 교정 지시대로 고치는 사람.
연 판: 활판(活版)에서 뜬 지형(紙型)에 납·주석·알루미늄의 합금을 녹여 부어서 만든 인쇄판. 요즘 신문인쇄방식은 연판인쇄방식이 아닙니다.

출처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충격 박근혜 대표 국가보안법 위반

박근혜 대표의 국가보안법 위반사실이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박대표는 지난 8월 7일, 일본 니혼제이사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과 직통전화기 아닌 독자적인 대화루트가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국가정체성 수호 및 간첩 박멸을 위한 범국민연대 회장 우국익씨는 북괴의 수괴와 독자적인 대화루트를 갖고 있는 것은 박대표 자신만 모를 뿐 국가보안법 상의 회합통신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대표는 2002년 5월에도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난 적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보안법상의 잠입탈출죄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정체성 수호를 위해서 박대표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실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토록 국가정체성을 언급하는 한나라당 내에 서도 누구 하나 이 범죄를 지적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한나라당 역시 국가정체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정당이라는 증거라며 당 전체를 전격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 룸, 2004. 08. 09)

KGB 이야기

옛날 '소련'이라는 나라가 존재할 때, 그 국민들 사이에 이런 유머가 유행했다고 합니다. 한 공장에서 세 사람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항상 출근이 10분이 늦었고, 또 한 사람은 항상 10분이 빨랐으며, 한 명은 칼같은 정시 출근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모두 KGB에 잡혀 갔습니다.

맨 먼저 잡혀간 사람은 물론 지각생이었습니다.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 나태함은 있을 수 없었다는 이유였죠. 그런데 갑자기 항상 10분 먼저 와서 일을 준비했던 사람이 잡혀갑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없는 공장에 항상 일찍 나온 것은 제국주의의 스파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정시 칼출근자는 도대체 어떤 혐의로 잡혀갔을까? 그것은 "제국주의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련제 중에서 그렇게 정확한 시계가 존재할 리 없다는 것이 KGB의 주장이었죠. 그리고 그 쓴웃음이 끝나기 전 하나의 질문이 더 덧붙여집니다. 그 세 사람이 잡혀간 진짜 이유는? 그 답은 "KGB가 사상이 불순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머를 들은 후 잠깐 킬킬거리다 보면 소련 체제 하에서 소련 사람들이 풍자했던 것이 무엇이었나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물론 KGB의 횡포도 미웠겠지만, 그 어떠한 구실이든 순식간에 선량한 노동자를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반혁명분자로 몰아갈 수 있었던 사회 그 자체를 증오하고 풍자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KGB의 의심 받으면" 무슨 구실이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사람들을 때려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고, 그걸 소련의 '법'이 허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그랬어? 모르고 그랬어?”

얼마전 모 방송국 효과음악으로 '적기'가 사용되었다고 하여 일부 언론이 난리 부루스를 춘 적이 있습니다. 결국 외국 유학생 출신으로 실미도 OST에서 음악을 골라 썼다가 재수없게 적기가

를 골랐다는 음악 감독은 경찰의 소환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경찰이 한 말이 재미있습니다.

"김씨가 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와 이같은 문제에 대해 무던 면이 있고 고의성은 없어 보인다"면서 "고의성이 증명될 경우 국가보안법 7조 5항에 의거 처벌하겠다."는 거지요. 즉, 죄를 묻고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적기가를 몰랐다는 사실이 아니라 유학파 음악감독이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원래는 적기가를 공공장소에 올리는 자체가 범죄였는데 그나마 91년 국가보안법 개정 당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대목이 들어가서 바뀐 겁니다마는...

그런데 그 사람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경찰이 어떻게 판단하는 걸까요? 관심법 쓰는 공예를 스카우트해 오지도 못하고, 계룡산 도인을 국가보안법 전담반으로 배치하지 않는 다음에야 말입니다.

경찰의 노고는 계속됩니다. 경찰은 음악감독이 소리바다에서 그 음악을 다운받았을 뿐이라고 하자 소리바다 운영자를 추궁했고, 소리바다 운영자는 어떤 네티즌의 홈페이지에서 나온 것일 뿐이라고 하자 그 네티즌의 아이피를 추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찾으면 또 물어 보겠조. "너 알고 그랬니? 모르고 그랬니?" 그리고 그 네티즌이 "실미도 OST에서 따온 건데요."라고 이야기하면 이번에는 실미도 음악 감독을 찾아갈지도 모릅니다.

"당신 똑바로 말해 알고 그랬어? 모르고 그랬어?"

영화 '실미도'에 적기가를 등장시킨 것만을 두고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악을 쓰는 희귀한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 이쯤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픽 하고 코웃음을 칠 단계에 접어들습니다. 하지만 코웃음을 칠 수만은 없지요. 우리나라 경찰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운 나쁜 외주 음악감독이나 네티즌, 소리바다 운영자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가택 수색을 벌였을 때,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나 박노해의 '참된 시작'이 발견된다면 그는 이적표현물을 '소지 탐독'해 온 자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목적으로 공중파 방송에 적기가를 틀어 낸 이적표현물 배포 및 이적단체 고무 찬양 혐의로 얼마든지 엮일 수 있습니다. 전향한(?) 박노해의 '참된 시작'이 무슨 이적표현물이나, 유신 시대같은 이야기로 거짓선전하지 마라고 주장하실 분들에게 죄송합니다만, 2002년 현역 군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짐작컨대, "관객 1000만명의 시대를 열었던 영화 '실미도'에서 사용돼 논란이 일었다... 그런 적기가의 멜로디를 모르고 내보냈더니 말이 되는가?" (문화일보 사설)라는 실기어린 추궁을 받으며 '방송가에 암약하고 있는 좌경세력'의 일원으로 봉합은 기본으로 먹을 일입니다. 그리고 '국보법 위반자'로서 대공 요시찰 인물로 등재되겠지요.

어떤 법이 범죄 사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위반자, 더 정확하게는 집행자의 머릿 속에 의해 결정되고, 위반자의 가슴 속을 알아낼 수 있다고 우기며, 그 법 집행자의 의도와 '시국'에 맞게 그 법에 대한 응징을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를 되풀이하면서 사람들을 묶어매거나 목을 친다면, 이미 그 법은 법의 여신의 자식이 아닐 겁니다. 어쩌면 법의 여신 아스트라이아가 전쟁의 신 아레스의 아들인 공포의 신 데이모스에게 강간당해 낳은 아들일 수는 있겠지요. 전쟁과 그 전쟁을 이용한 공포로 인해 만들어진 법이 되 법 아닌 법이며, 법일 수 없는 법이 되 법이라고 우겨지니 말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KGB 관련 유머에서 KGB 관리는 어떤 공장에 근무하는 세 사람 모두 '사상이 불순하다'는 의심을 품었고, 그 의심을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합리화합니다. 즉 KGB는 마음만 먹으면 그 관찰 하의 모든 시민들을 범죄자로, 제국주의의 옹호로, 반혁명분자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국가보안법처럼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국가보안법은 개줄에 묶여 힘없이 개집 앞에 앉아 있을지언정 (그래도 간혹 지나가는 사람을 물긴 합니다만) 그 주인이 바뀌고 개줄이 풀리면 언제든지 애매한 사람을 물어뜯을 수 있는 맹견이며, 여러 번 사람을 물어 죽였던 살인견입니다. 그리고 그 개가 물어뜯을 상대를 정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그 주인의 '의도'일 뿐이지요.

그 맹견을 애완견으로 굳이 길러야겠다는 사람들을 보면 그저 아연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맹견의 살성(殺性)을 익히 보아 왔으면서도 굳이 도둑들까 무서우니 좀 훈련시켜 (개정시켜) 보자는 분들도 딱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그 맹견이 잡았던 건 도둑보다는 자기 식구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개는 누구든 개줄을 잡은 사람의 명을 따라 누구든 물어뜯을 터인데 말입니다.

출처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국가보안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

제 친구 이름은 철수입니다. 참 흔한 이름이지요.

어느 날, 철수의 호루라기 소리에 발맞추어 걷던 우리들은 학교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깜장 양복 입은 아저씨들이 와선, 이걸 학교놀이 가 아니라 군사훈련이 분명하다며,

“너가 무슨 무슨 후보 김철수지!”라며 철수를 데려갔습니다.

철수는 저희 반 반장 후보도 아니었는데 무슨 무슨 후보라며 데려가 버렸습니다.

얼마전엔 어떤 아저씨를 또 무슨 무슨 후보 김철수라며 데려가는 걸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그 아저씨 이름도 철수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아저씨 이름은 송두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철수가 맞다고 데려갔는지 모르겠습니다.



- | | |
|----------------------------------------|----------------|
| 악법도 법이라고요? 전 그런 말한 적이 없는데요? | 소크라테스 |
| 악법이 양법을 구축하는 법이지요. | 그레샴 |
| 제 검 같은 법이군요. | 다모클레스 |
| 수학적이지 못한 법이군요. | 피타고라스 |
| 그 법 좀 저리 치워주시겠소? | 디오게네스 |
| 국가가 병들만한 법입니다. | 히포크라테스 |
| 기다리면 사라지겠지요... | 쿠인투스 막시무스 파비우스 |
| 폐지론은 던져졌다. | 카이사르 |
| 제 방주에 이런 법은 안 실을 겁니다. | 노아 |
| 솔직히 말하자면 폐지해야지요. | 샤를마뉴 |
| 자옥에 온 기분입니다. | 단테 |
| 나비의 법입니까, 인간의 법입니까? | 노자 |
| 좋은 법 같지 않군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 윌리엄 오브 오컴 |
| 사자에게 영광이 있는 해에 폐지될 겁니다. | 노스트라다무스 |
| 제 아내들에게 써먹었으면 이혼할 일도 없었을 텐데... | 헨리 8세 |
| 폐지냐, 보존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 세익스피어 |
| 제 정치 같은 법이군요. | 로베스피에르 |
| 비판적으로 봐야 할 법 같군요. | 칸트 |
| 이런 법치는 부국강병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한비자 |
| 진화하지 못하는 법도 때론 있는 법이지요. | 다윈 |
| 잃어버린 진정한 법을 찾으려 갑시다. | 프루스트 |
|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법이군요. | 비트겐슈타인 |
| 입체적인 법은 아니군요. | 피카소 |
| 제 생각과 비슷한 법이군요, 제 말이 곧 법이지요(숙청해). | 스탈린 |
| 악법이라는 여론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 갈릴 |
| 외계인의 음모입니다. | 멀더 |
| 부조리한 법입니다. | 카뮈 |
| 아무 말 없이 토한다. | 샤르트르 |
| 폐지되면 부활은 못할 겁니다. | 예수 |
| 제 법전엔 이런 조항이 없지요. | 나폴레옹 |
| 왓슨, 이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 셜록 홈즈 |
| 법(정의)와 악의 결혼이군요. | 블레이크 |
| 악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폐지될 뿐이다. | 맥아더 |
| 테러 방지 조항이 부족한데요. | 부시 |
| 박제가 되어버린 법을 아시오? | 이상 |
|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 있다면 폐지 할 수 있을 겁니다. | 에디슨 |
| 심계명이면 충분합니다. | 모세 |
| 상상할 수 없는 법이군요. | 존 레논 |
| 폐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베케트 |
| 오- 국가안보여, 너의 이름으로 그 얼마나 많은 범죄가 저질러졌는가. | 롤랑 부인 |
| 많은 사람이 행복한 법입니까? | 벤담 |
| 결혼 같은 법이군요. | 쇼펜하우어 |
|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 헤밍웨이 |
| 폐지되지 않더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 스피노자 |

북 치 는 소 년

현 호

실로 어처구니 없는 말이었다.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건달과 건달 아닌 사람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단 말인가.

두환제의 그 같은 명령은

당연히 끔찍한 참화를 불러왔다.

두 환제(頭換帝) 때의 일이다. 희제(熙帝)의 뒤를 이어 제위에 오른 두환제는 제위의 정통성을 문제 삼는 반대파를 억누르고, 희제의 돌연한 죽음으로 어수선한 민심을 수습하고자 도성은 물론 변방을 다스리는 직책에까지 자기 심복을 내세우고 새로 법령을 엄히 세웠다. 특히 두환제는 민심을 문란하게 하고 사람들을 선동한다는 이유로 음악을 금하였는데, 당시 나라에는 북을 잘 치는 것으로 이름을 얻은 한 소년이 있었다.

비록 나라에서 음악을 금지하였으나, 북을 치는 것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소년은 그 일을 그만둘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전국 각지를 떠돌며 몰래 북을 치며 살았는데, 워낙 북을 치는 재주가 신묘하여 한번 북을 치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모두 났을 일고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 자연 법을 집행하는 이들의 이목을 피하기가 쉽지 않았다. 결국 소년은 어느 마을에 이르러 붙잡혀, 두환제의 일가붙이로 태수(太守)를 맡아보던 이 앞에 끌려가게 되었다.

"너는 나라에서 음악을 엄격히 금하고 있음을 아는가 모르는가? 북을 쳐서 사람들을 모으니, 그 사람들을 선동하여 반역이라도 꾀할 속셈이 아닌가? 민심을 어지럽힌 죄가 크니 극형으로 다스림이 마땅하리라"

태수가 소년을 무릎 꿇리고 큰소리로 꾸짖었다.

"옛 성인께서도 예악으로써 백성들을 교화시킨다고¹⁾ 하셨습니다. 당금(當今)에 천하가 어지럽고 백성들의 삶이 고단하니, 마땅히 음악을 통하여 그 고단함을 풀어주는 일이 틀리지 않습니다. 예부터 농사짓는 이들은 흥겨운 음악으로 피로를 달랬고, 또한 사람들이 화합하는데 음악만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국법을 어기고 북을 친 것은 사실이지만, 미천하나마 타고난 재주가 그 하나뿐이라 먹고 살기 위해 한 일입니다. 음악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제가 말한 바와 같고, 저 또한 감히 역모를 꾀하려고 북을 친 것이 아니니 부디 태수께서는 널리 헤아려 주십시오."

"닥쳐라! 국법을 어긴 죄만으로도 죽어 마땅하거늘, 어찌 요사스런 허를 놀려 국법을 우롱하고 살 길을 도모하느냐! 너를 끌어내 목을 베는 것으로 국법의 준엄함을 보여주리라!"

말을 마친 태수는 곧바로 사람을 시켜 소년을 끌어내게 하고는 그 목을 베어 성문 앞에 호수하였다. 그 일을 들은 사람치고, 소년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그리며 슬퍼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러나 과연 소년의 목을 자른 것이 효과가 있어, 그 뒤로 나라 안에 다시는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음악이 없어지니, 백성들은 활기를 잃고, 즐거워하는 법이 드물었다. 백성을 생각하는 관리 몇몇이 간혹 두환제를 찾아 음악을 허할 것을 주청하였으나, 벼슬을 떼이고 심하게는 목숨을 잃기까지 했다. 그러니 아예 음악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는 사람이 없어졌다.³⁾

그렇게 나라 전체가 무덤 속 같은 음산한 분위기에 젖고 있는 것을 참고 지켜보던 한 신(神)⁴⁾이 있었다. 그는 음악이 없어진 폐단으로 백성들이 겪는 고초가 극심한

것을 보고, 천상의 계율을 어기면서까지 지상에 들리도록 음악을 연주하였다. 그런데 백성들을 위무(慰撫)한다는 좋은 뜻에서 행한 일이 도리어 백성들을 해치는 결과가 되어버렸다.

두환제는 민심이 흉흉한 까닭으로 마음속이 늘 불안했는데⁵⁾ 이제 하늘마저 자신을 저버리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레 천문과 제사를 관장하는 사람을 불러 이 괴이한 현상에 대해 물었다.

"이는 틀림없이 하늘에서 음악을 관장하는 건달바라는 신의 소행입니다. 민간에서는 흔히 빈둥거리고 돌아다니며, 남의 일에 트집 잡거나 잘하는 사람을 일러 건달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온 곳이 다름 아닌 건달바입니다." 그 말을 들은 두환제는 오래된 불안이 마침내 머릿속까지 상하게 했는지, 어떤 광기에 휩싸여 영(令)을 내렸다.

"천자는 원래 하늘에서 내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 건달바라는 보잘것없는 신 하나가 천명과 순리를 거스를 수 있단 말인가! 내 전국 각지의 건달들을 잡아 죽여 천자의 위엄을 세우고, 건달바라는 놈의 간담을 서늘케 하리라!"

실로 어처구니없는 말이었다.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건달과 건달 아닌 사람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단 말인가. 또한 아무리 천자라 하나 어찌 저토록 신을 우습게 여길 수가 있는가. 두환제의 그 같은 명령은 당연히 끔찍한 참화(慘禍)를 불러왔다. 공을 세우려는 욕심에 눈이 뒤집힌 관리들이 너나없이 앞장서서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잡아 죽이니, 그때 나라 안의 광경이 꼭 지옥도와 같았다.⁶⁾

별다르게 하는 일 없이 집에서 학문에만 전념하던 선비에서부터 농한기라 쉬고 있던 농사꾼에 이르기까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짓거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한바탕 피바람이 지난 뒤에 두환제가 취한 조치였다. 사람들을 많이 잡아 죽인 순서대로 공을 따져 상을 내리니, 한 고을의 수령은 사람을 삼천 명 잡아 죽인 일로 그 벼슬이 대부(大夫)에 이르렀다.

그래도 하늘이 무심하지는 않은 지, 그 일이 있고 두환제는 갑자기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그러다 결국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한밤중에, 세 바가지의 피를 토하고 허를 빼내 채 몸이 배에 꼬여 죽어버렸다.⁷⁾

그러나 음악을 금한 법은 쉽게 없어지지 않고, 그 뒤로 백 년 가까이 이어졌다. 그 기간 동안 그 법으로 인해 무고하게 죽고 다친 이의 수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실로 음악 하나가 불러온 참상이라고 하기에는 믿기지 않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지금 사람들이 잘 모르는 두환제의 일을 세상에 널리 알려, 다시는 이런 게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쓴다. 위정자는 마땅히 두환제의 일을 잊지 말고 법을 세우고 행하는데 있어 경계로 삼아야 하리라.

1)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천하를 호령하던 희제(AD 963~979)가 작국과 내통한 자객의 습격을 받아 어이없이 세상을 떠나자, 당시 도성에서 도위(都尉)의 벼슬을 맡고 있던 자가 병사들을 이끌고 궁궐을 침입하여 대권을 휘어잡았다. 그리고 마침내 무력을 등에 업고 스스로 제위에 나아가니 그가 곧 두환제이다.

2) '논어'에서 공자는 예악(禮樂)을 통해 백성들을 교화시키는 일이 중요함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3) 기록은 전한다. "나라에서 음악을 무성케 금하니, 어느 누구도 감히 음악이란 말을 입에 올리지 못했다. 나라 안에 음악이 없어진 뒤로 백성들의 표정은 매양 근심에 차 있는 듯하고, 즐거운 일이 생겨도 마땅히 즐거워 할 길이 없었다. 나라 전체의 분위기가 꼭 상갓집과 같았다."

4) 건달바(健達婆)를 일컫는다. 건달바는 건나라(健那羅)와 함께 재석천(帝釋天)을 모시며 기악(伎樂)을 연주하는 신이다. 술과 고기를 먹지 않으며, 다만 향을 찾아다니는 뿐이므로 심행(尋香)이라고도 한다.

5)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두환제는 반란과 암살의 두려움에 시달려 가족을 만날 때도 속에 감옥을 받쳐 입고 다녔다.

6) 제왕기(帝王記) 두환제편(頭換帝篇)에 따르면, 당시 죽은 사람들의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고 한다. 시체가 너무 많아 땅에 묻지도 못하고 한자리에 모아 태워버렸는데, 시체들이 모두 타는데 자그마치 삼 개월이 걸렸다고 한다. 또한 시체들에 붙은 불 때문에 나라 전체가 밤에도 환하고, 그 시체들이 타는 냄새를 천리 밖에서도 맡을 수 있었다고 한다. 재왕기를 쓴 사가는 그 일을 두고 이렇게 한탄했다. "시체들이 모두 타는데 삼 개월이 걸렸지만, 억울하게 가족을 잃은 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치지까지는 삼십 년이 걸렸다."

7) 두환제가 하는 짓을 보다 못한 누군가 두환제가 먹는 약에 독을 타 독살했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두환제의 뒤를 이어 그 아들이 제위에 오르면, 독살이 사실이라도 부질없는 짓이 되고 말았다.

아류Ready?

(대가 어느때)



국가보안법

은국민의정치

사상의자유와표현

의자유를억압

하여왔습니다국가

보안법이제폐지될때입니다

당신은 정말 자유롭습니까?

신고·상담: 국가정보원 대공안실 02-999-1113
국회법회 02-778-2112
국립·전국 112 • 국군기무부 02-777-1113

국가정보원 아님

「당신은 간첩? 혹은 친북좌파?」

테 / 스 / 트



돌아가기 전에...

- ※ 본 테스트 문항은 당신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보안법을 얼마나 충실히 지키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그러나 어디까지나 재미로 보는 테스트입니다.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길.
- ※ 본 테스트 문항과 판정은 경찰대학 부속기관 '공안문제연구소'의 표준판정법을 참조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자신의 점수 총합계에 따라 나온 A부터 F까지의 결과 중 하나가 국가보안법에 따른 당신의 사상 검증 결과입니다.
- ※ 대부분 문항의 예시는 실제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처벌받은 사항들입니다.

PART A 예/아니오로 대답하세요.

- 01_ 9월 9일이 생일이다(혹은 9월 9일이 아주 없어 좋다).
(예 - 3점) (아니오 - 0점)
- 02_ 튼튼한 집은 역시 빨간 벽돌로 지어야...
(예 - 3점) (아니오 - 0점)
- 03_ 북한 경치가 아름답다고 한 번쯤 생각해 본적이 있다.
(예 - 3점) (아니오 - 0점)
- 04_ 북한 특수부대가 싸움을 잘하는 것은 사실 아닌가?
(예 - 3점) (아니오 - 0점)

PART B 보기 중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세요.

- 01_ 당신이 만약 다시 태어나 생일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면 다음 중 어느 날을 택하시겠습니까?
① 4월 20일 (4점)
② 2월 16일 (2점)
③ 8월 15일 (0점)
④ 셋 다 싫다 (-2점)
- 02_ 책상 위에 음반이 4개 놓여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반을 고른다면 어느 음반을 택하시겠습니까?
① 흘러간 건전가요 (0점)
② 북한가요 '휘파람' (3점)
③ 실미도 OST (2점)
④ 음악 따윈 듣고 싶지 않아! (-2점)

- 03_ 꽃이라도 살까 하고 들른 꽃집에서 마침 마음에 드는 꽃을 발견했습니다. 그 꽃은 무엇인가요?
① 목란 (4점)
② 무궁화 (0점)
③ 베고니아 (2점)
④ 새빨간 장미 (1점)
- 04_ 당신이 가면무도회에 참가한다면 어떤 가면을 쓰고 참가하겠습니까?
① 돼지 가면 (3점)
② 양 가면 (2점)
③ 개미 가면 (0점)
④ 무도회 따윈 관심 없다. 그 시간에 한 편이라도 더 벌겠다 (-3점)
- 05_ 다음 말들 중 내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싶은 말이 있다면?
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2점)
②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속에 불가능한 꿈을 가지자 (3점)
③ 웅치면 살고 흠지면 죽는다 (0점)
④ 비록 굴은 남의 나라 굴을 잃어도 정신만은 언제나 제나라에 있어야 한다 (4점)
- 06_ 당신은 해외여행 중입니다. 배가 고파 식당을 찾던 중 마침 괜찮아 보이는 식당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식당은?
① 간단하게 먹지 뭐, '맥도날드' (-2점)
② 맛있는 전주비빔밥집 (0점)
③ 시원한 평양냉면 '옥류관' (4점)
④ 러시아 수프요리집 (2점)
- 07_ 컴퓨터의 하드를 정리하다가 여러 가지 파일이 나왔습니다. 하나만 남기고 다 지워야 한다면 무엇을 보관하겠습니까?
① 금강산 기행문 (4점)
② 애국가 MP3 파일 (0점)
③ 미인 북한응원단 관련 신문 기사 (3점)
④ AK47 소총을 든 구소련 군인 사진 (2점)

PART C ()안에 마음에 드는 말을 넣어주세요.

- 01_ 남/북이 함께 입장하는 것을 보니 ()
① 너무 기뻐 박수를 치고 싶다 (3점)
②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 (4점)
③ 아무 느낌 없었다 (1점)
④ 말세라는 생각이 들었다 (0점)
- 02_ 김정일은 ()
① 파마머리가 귀엽다 (4점)
②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군통수권자이다 (3점)
③ 머리가 좋긴 좋아 (1점)
④ 빨리 권좌에서 물러나라 (0점)

PART A

- 01 9월 9일은 북한 창건일입니다. 9월 9일이 좋다고 한 당신, 뭔가 수상하군요?
- 02 '튼튼한 집은 역시 빨간 벽돌로라...' 지금 튼튼한 국가는 공산주의 사상으로, 라는 의미로 말한 것 맞죠? 맞죠?
- 03 그래서 가고 싶다는 겁니까? 지금? 북한에 들어가겠다고요?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 04 아니 지금 우리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북한 특수부대를 칭찬하다니! 이런 국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발언을!

PART B

- 01 4월 20일 - 레닌 생일, 2월 16일 - 김정일 생일, 8월 15일 - 정부수립 기념일.
생일은 빨갱이를 알아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천재적인 수사관들께서는 현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을 조사하는데 있어서 9월 9일이 생일이라는 이유로 영락없이 빨갱이라고 단정하셨으니 이 어찌 위대한 조사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 02 음악으로 알아보는 당신의 성향! 북한가요를 듣겠다니 무시무시한 생각이 아닐 수 없군요. '적기가'가 삽입되어 있는 실미도 OST를 들겠다는 분도 계시군요! 조선족 가요인 줄 알고 택시에서 북한 가요를 틀었다가 체포된 택시기사의 이야기를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 03 사상을 알아보는 방법으로는 꽃의 취향도 중요합니다. 북한의 국화는 목련! 베고니아는 북한에서 개량품종이 일명 '김정일화'로 불리우는 신성화된 꽃입니다. 빨간 장미는 뭐가 문제되나구요? 이봐요! 이제부터 흰 장미를 좋아하세요! 좌익 사상에 얼마나 몰두했으면 '빨간' 장미를 좋아합니까?
- 04 당신이 위장하는 모습으로 당신의 간첩 능력과 숨겨진 본마음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돼지는 옛날부터 북한 사람을 표현하던 방법 아닌가요, 무의식적으로 선택한 것 아닙니까? 양 가면이라니, 훌륭한 위장입니다. 하지만 속지 않아요, 선한 모습으로 위장하다니 보통 실력이 아니군요.
- 05 당신의 인생관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나... 이런 명백한 반자본주의적 발언입니다. 2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공산주의자 개릴라 체 게바라의 말을 좌우명으로 삼다나! 4번을 선택한 당신은... 조금 조사가 필요하 군요, 김정일의 발언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단나...
- 06 먹는 것 또한 사상 검증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의 원조 국가 러시아 수프를 먹는 것도 수상한데, 북한 요리집이라네! 다음 사항을 보세요!
국가보안법 제8조입니다!
제8조 (회합, 통신 등)
①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07 당신의 컴퓨터 안에 지금 이 순간 붉은 사상의 결과물이 들어있을지 모릅니다. 조심하세요, 금강산 사진, 왜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북한으로 넘어가고 싶어서? 북한응원단 기사까지? 혹시 여자친구 하나 없는 자신의 신세를 비관해 북한으로 넘어가 미인 여자친구라도 만들고 싶은 것 아닙니까? 솔직히 자백하세요!

PART C

- 1, 2 두 문항 모두 당신의 찬양, 고무 사항 위반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TV에 북한의 '북'자만 나와도 웃거나 기분 좋아지며 '잘된 일이다'라고 하는 당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고 있네요. 어찌 대한민국의 원수 김정일의 파마머리를 보고 귀엽다고 할 수 있습니까? 찬양도 이만한 찬양이 아닐 수 없군요! 우리 모두 광장에서 인공기를 불태우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신들을 본받읍시다!

◎ A형인 당신은? 친북응공성향 [31 ~]

꿈에서라도 오매불망 북을 그리워하는 당신, 하지만 당신의 애타는 사랑은 이뤄질 수 없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과 같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랄까요. 하지만 힘내세요! 언제나 하늘은 노력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준답니다! 당신의 바람은 언젠가 하늘에 가 닿아 북쪽에 가 친애하는 김정일 동무들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참 그전에 잡히지 않게 조심하세요. A형은 감옥에 갈 위험성이 가장 높은 타입입니다. 아, 그리고 혹시 친구나 애인, 아는 사람 중에 A형이 있다면 빨리 신고하세요. '불고지직' 아시죠? 슬프지만 어쩔 수 없어요, 법이 그런걸요.

◎ B형인 당신은? 좌익성 [6 ~ 30]

친북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좌익성을 가지고 있는 당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자유대한의 품으로 돌아오세요.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노력하면 된답니다. 우선 주위에 빨간색은 쳐다보지도 마세요.(물론 축구 경기도 보지 말아야죠) 철저히 알아보고 조금이라도 빨갱이대!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 책은 보지도 마세요.(성적이 떨어지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부터 실행해 봅시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파이팅!

◎ C형인 당신은? 반정부적성향 [0 이하]

마이너스 점수가 나온 당신, 대단히 사회에 불만이 많군요. 혹시 학교 때 선생님이 머리를 깎고 오라고 하면 식발을 하고, 창개구리를 보면 뽀빠 모를 동질감을 느끼며, 열정한 길 놔두고 담을 넘어 다니지 않습니까? 이 타입의 사람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혀갈 일은 없지만 언젠가는 경범죄로 잡혀가거나, 거리에서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C형은 외로운 사람이 많습니다. 주변에 C형이 있다면 사랑으로 감싸주어 잘못된 빨갱이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인도해주시다.

◎ D형인 당신은? 문제없음 [1 ~ 5]

축하합니다! 당신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데에 아무런 하자가 없군요! 하지만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인가요. 주위엔 아직도 붉은 티를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빨갱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서 자유대한의 품으로 끌어들이자요. 자, 이제부터 거리로 나갑시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빨갱이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밥을 사주든,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주든 체제의 우월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천천히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도를 아십니까' 류의 사람으로 착각받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F형인 당신은? 간첩이 의심됨 [0]

당장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로 자진 출두하세요, 그리고 성심성의껏 조사를 받으세요. 0점이라니... 위장술이 극에 달했군요. 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일급기밀을 얼마나 빼돌렸습니까? 아하, 발뺌해도 소용없어요. 자, 그리고 F형이 주위에 계신 분, 간첩 신고는 국번 없이 113!



간첩선 최고 1억 5천만원,
간첩 최고 1억원,
좌익사범 최고 3천만원!





죽보법의 미래를
알려줄까?

그립 디몰라

악마의 악!